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④ 석도안(釋道安)



▶ 한줄 요약
'본무종'의 대표자로서 반야사상을 널리 펼쳤으며, 중국불교의 틀을 마련한 고승, 석도안

반야사상 펼치며 중국불교 틀 마련

중국불교는 동한(東漢)시기에 역경(譯經)이 시작됨으로써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고, 위 · 촉 · 오의 삼국으로 분열된 시기에 서서히 그 틀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이 삼국 가운데 중국문화의 핵심지역인 중원(中原)을 차지한 조위에서는 반야학을 원용한 '현학(玄學)'을 제창하였으며, 현학으로부터 중국은 서구 근세의 '르네상스'와 비견될 정도의 인문학이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 중국인으로서 최초로 정식으로 대계(大戒)를 받은 주사행(朱士行)이 또한 최초로 서역으로 구법하여 〈방광반야경〉이 중국에 전래된 이후, 수많은 서역 승려들이 반야부 계통의 대승경전을 가져와 역출하여 본격적으로 대승불교가 유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조위는 사마의(司馬懿)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 세력들의 쿠데타인 '고평릉(高平陵) 사변(249)'으로 인하여 실권을 빼앗겨 265년에 망하게 되어 서진(西晋)이 시작되었고, 곧이어 촉(蜀)을 멸하고(263), 오(吳)를 멸하여(280), 다시 중국을 통일하게 되었다. 서진 시기는 정치적으로 조위에서 활동하던 고위관직에 있었던 현학가들을 모두 참살하는 숙청을 단행하여 사서(史書)에 "천하에 연고가 많아 뛰어난 선비들이 목숨을 보전하는 자가 적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는 현학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으며, 당시의 현학을 바탕으로 하는 많은 지식인들은 사마 정권을 비판하며 은둔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이를 후대에 이른바 '죽림칠현(竹林七賢)'으로 전설화시켰다. 현학은 비참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유교의 명교(名敎)에서 가장 강조하는 예(禮)를 초월하여 자연(自然)에 맡긴다는 종정월례(縱情越禮)를 제창하였는데, 이는 조위를 멸한 보수 세력들의 사상적 근거가 유교였기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현학의 사상적 흐름을 최대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현학은 중국 사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중국불교의 흐름에 가장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기 때문이다. 불교의 핵심적인 교의(敎義)는 물질의 변화와 정신의 작용에 대한 관계를 분석, 불교학적인 용어로 '석공(析空)'하면서 전개되는데, 일반인들이 '생멸(生滅)'로 보는 현상을 '유무(有無)'로 전환시킨다. 이 '유무'는 결국 '진속(眞俗)'의 문제로 나아가고, 그에 따라 '생멸', '생사(生死)'의 세계를 벗어나 '열반(涅槃)'에 이르는 과정을 시설하고 있다. 그렇지만 '반야'에 이르면 진리의 세계와 세속의 세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즉(卽)'의 관계임을 논증하면서 '유무쌍견(有無雙遣)', '진속불이(眞俗不二)', 제법(諸法)의 불가득(不可得)을 제창하고, 최종적으로 '중생즉불(衆生卽佛)', '생사즉열반(生死卽涅槃)', '번뇌즉보리(煩惱卽菩提)'라고 하여 중생과 부처는 철저하게 '즉'의 관계임을 제시하게 된다. 현학에서는 바로 반야에서 중시하는 '유무'의 논리를 채용하여 전개되었다고 하겠다. 초기 현학에서는 하안과 왕필에 의하여 만사만물이 존재하는 근거를 '무(無)'로 설정하면서 '유'를 섭수하는 '귀무론(貴無論)'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본말(本末)', '체용(體用)' 등 이전의 중국사상에 없었던 개념들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서진이 다시 중국을 통일하자 배위(裴頠)에 의하여 '숭유론(崇有論)'이 제창되는데, 사상적으로 본다면 '무'에 대한 '유'의 반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무'와 '유'가 대립되었다면 이를 지양(止揚)하는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곽상(郭象)의 '즉유즉무(卽有卽無)'를 통한 '독화론(獨化論)'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현학은 '무'를 중시하는 '귀무론', 그에 대한 '유'의 반론인 '숭유론', 그를 '즉(卽)'을 통하여 지양한 '독화론'의 세 가지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진 시기는 이러한 현학이 시대사조로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반야부 경전이 대량으로 번역되고, 반야학이 주류를 차지하고 유행하였다. 그렇지만 당시의 번역과 강설, 나아가 저술들에 모두 현학을 원용하고 있는데, 이를 '격의불교(格義佛敎)'라고 한다. '격(格)'은 '량(量)'을 의미하는 것으로, 난해한 반야의 논리를 중국의 사상과 배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격의불교에 대하여 당시의 명승 도안(道安)의 〈비나야(鼻奈耶)〉의 '서(序)'에서는 "천축의 사문들이 경전을 지니고 올 때마다 번역되는데, 십이부(十二部) 가운데 비목나부(毗目羅部)가 가장 많았다. 중국인들이 노장(老莊)의 가르침으로써 〈방등경(方等經)〉을 겸망(兼忘)과 비슷하게 보았으므로 쉽게 유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목라"는 바로 '방광(方廣)'을 의미하고, 대승경전에 속하는 것이며, 〈방등경〉 또한 대승경전을 가리킨다. 따라서 서진시기에 대량의 대승경전이 전래되어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번역이 대부분 노장과 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당시 시대사조인 '현학'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격의불교는 당시 불교의 주류가 되어 수많은 학파들이 출현하여 흔히 '육가칠종(六家七宗)'으로 칭해진다. 그 가운데 '본무종(本無宗)', '즉색종(卽色宗)', '심무종(心無宗)'의 세 가지 부류가 가장 유행했다고 한다.

중국 전래 번역경전 최초 정리
경전번역에 대한 기준 틀 마련
〈승니 규범〉 저술로 교단 정비
승려 성(性) 모두 '석'씨로 통일



도안 초상화.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중국역대인물 초상화(한국인문고전연구소)

그런데 서진은 사마(司馬) 일족의 권력투쟁인 팔왕(八王)의 난(291~306)으로부터 시작하여 수십 차례의 전란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북방 소수민족들의 침입을 겪었으며, 결국 흉노족들이 침공한 영가(永嘉)의 난(307~312)으로 50여 년 만에 망하였다. 이로 인하여 북방에는 흉노(匈奴), 갈(羯), 선비(鮮卑), 저(氐), 강(羌) 등의 다섯 민족[五胡]들이 이조(二趙), 삼진(三秦), 사연(四燕), 오량(五涼) 및 하(夏), 성(成, 成漢) 등의 16개국을 세우고, 남방에는 서진을 계승한 동진(東晋, 317~420)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 시기는 남방의 동진과 북방의 16국이 분할되어 격심한 전란을 벌이게 되는 중국 역사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가장 혼란한 시절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전란의 시기에 중국 민중들 대다수가 불교를 신앙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끊임없는 전란의 상황에서 불교가 제공하는 피안(彼岸)의 세계에서 안심(安心)을 찾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전란의 상황에서도 경전의 번역과 불법의 전파는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중국역사에서 가장 혼란한 시기에 전체적인 중국불교의 틀을 만들어졌으며, 중국불교사에 중국인으로서 최초의 고승으로 평가되는 도안(道安, 312~384, 혹은 314~385)이 출현하였다.

도안의 전기는 〈출삼장기집〉 권15, 〈명승전〉 권5, 〈고승전〉 권5 등에 실려 있으며, 이후 〈역대삼보기〉, 〈불조통기〉, 〈육학승전(六學僧傳)〉, 〈신승전〉 등 다양한 문헌에 적지 않은 분량으로 실려 있는데, 이로부터 도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도안의 생몰연대는 조금의 차이가 난다.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출삼장기집〉에 실린 그의 전기에 따르면, 도안은 건원(建元) 21년(385) 2월 8일에 입적하였다고 하는데, 다른 자료를 종합하면 74세로 입적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도안의 출생은 영가 6년(312)인데, 이 시기는 영가의 난에 의하여 서진이 망하는 시기이고, 동진은 317년에 건립된다. 흔히 도안을 '서진 혹은 동진의 명승'이라고 하지만, 도안은 북방의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칭호라고 할 수 있다.

도안은 12세에 출가하였지만, 얼굴이 검고 못생겨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다가 몇 년 후에 경전을 하루 만에 암송하여 스승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구족계를 받았다고 한다. 그 후에 북방의 여러 곳을 유행하다가 후조(後趙)의 수도 업(鄴)에서 불도징(佛圖澄)을 만나 10여 년간 사사했으며 수많은 경전들을 정리하고, 한편으로 주석과 서문을 썼다. 〈출삼장기집〉 권5 〈신집안공주경급잡경지록(新集安公注經及雜經志錄)〉, 〈안반수의경〉, 〈방광반야경〉 등 19종의 경전에 대한 주(注)를 달았다. 그 가운데 〈방광반야기진해(放光般若起盡解)〉에서는 경전을 강설하기 위해 서분(序分) · 정종분(正宗分) · 유통분(流通分)의 삼과(三科)로 분류하는데, 이는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출삼장기집〉의 '경서(經序)'에서는 〈안반주서〉, 〈도행경서〉 등 중요한 경전 15종에 대한 도안의 '서(序)'가 실려 있다. 또한 〈종리중경목록(綜理衆經目錄)〉을 찬술하여 그 시대까지 번역된 경전들의 목록을 집성하고 있는데, 이 저술은 현존하지 않지만, 〈출삼장기집〉 등의 후대의 역경목록에서 〈도안록〉 혹은 〈안록〉의 명칭으로 인용되고 있다. 이외에 〈서역지(西域志)〉 등의 다양한 저술이 있다. 또한 도안은 당시 사문들이 모두 성이 달랐던 것에 대하여 '석(釋)'씨로 통일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자신도 '석도안(釋道安)'으로 하여 이후 규범이 되었다고 한다.

전진(前秦)의 부견(符堅)이 도안을 흠모하여 당시 도안이 머물던 양양(襄陽)을 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침공하여 마침내 도안을 장안(長安)의 오중사(五重寺)에 주석하였으며, 이곳에서 계속 법을 펼치다 입적하였다.

한편 도안은 앞에서 언급한 격의불교의 '본무종'의 대표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본무종은 사상적으로 왕필의 현학인 '귀무론'(본무론)과 상당히 유사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후대에 승조(僧肇)에 의하여 반야사상에 미진한 논리라고 비판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하여 구마라집(鳩摩羅什)의 또 다른 유명한 제자인 승예(僧叡)는 "성공(性空)의 종(宗)은 지금 그를 검증하여 보니, 가장 그 실(實)을 얻고 있다. 하지만 용광로의 제련하는 노력은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못함이나, 마땅히 찾을 수 없었던 것이지, 찾아도 얻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毗摩羅詰提經義疏序〉)고 논평하고 있다. 여기에서 "성공의 종"은 도안의 본무종을 가리키는데, 육가칠종 가운데 가장 뛰어남을 인정하면서도 당시에 전래된 경전과 논서로는 반야의 참다운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도안은 중국인으로서 첫 번째 고승으로 손꼽힐 학식과 덕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반야사상에 있어서는 미진한 바가 있어서 승조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그것은 승예의 지적처럼 시대적 한계일 따름이다. 도안의 업적을 간략히 나열한다면, 중국에 전래되어 번역된 경전을 최초로 정리했고, 경전의 번역에 대한 틀을 제시했으며, 또한 비록 현존하지는 않지만 〈승니규범(僧尼規範)〉을 저술하여 교단을 정비하였고, 승려들의 성을 '석'씨로 통일시켰으며, '본무종'의 대표자로서 반야사상을 널리 펼쳤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로부터 학계에서는 중국불교의 틀을 마련한 고승으로 평가하고 있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